

Part. 4

이주민의 나눔 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봉사과 기부 활동을 중심으로



책임 연구자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책임 연구자

이 민 영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력

University of Bristol (UK) 사회복지학 Ph.D.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박사

주요 경력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연구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위원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회장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기부심의위원 등

연구실적

- 오민정, 이민영 (2025). 팬데믹이 바꿔놓은 기부문화: 착한 기부자에서 책임 있는 기부자로. *마케팅 연구*, 40(4), 1-24.
- 이민영, 구지윤 (2023). 청소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유스필란트로피 활동 평가: 청소년배분 위원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64, 105-130.
- 김유나, 이민영 (2023).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Z 세대 10대 청소년 가족가치관 유형분석 및 영향요인 탐색. *가족과 문화*, 35(4), 1-27.
- 이민영, 윤민화 (2022). 지역사회 참여기반 청소년 나눔교육 프로그램 평가연구: 청소년의 시각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5), 55-85.
- 윤민화, 이민영 (2022). 비영리조직 모금활동의 윤리적 풍토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과학 탐론과 정책*, 15(1), 1-27.
- 노연희, 이민영 (2022).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수준과 자원동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과실천*, 8(1), 129-170.
- 노법래, 정진경, 최권호, 이민영 (2022).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국내 자원봉사활동 변화의 실제-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1), 133-155.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거주하는 이주민의 나눔 활동(봉사 활동과 기부 활동) 경험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한 연구이다. 기존의 이주민 연구가 이들을 ‘지원의 대상’ 혹은 ‘수혜자’로 규정해온 한계를 넘어, 이주민을 ‘주는 시민(giving citizen)’으로 재조명하고 그 사회적 함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북한, 베트남,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지닌 11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강사 등 지역사회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거주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25년이었다. 반구조화된 인터뷰 가이드에 따라 나눔의 동기, 문화적 맥락, 정체성 변화, 사회적 관계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주민의 나눔 활동은 네 가지 핵심 주제로 수렴되었다. 첫째, ‘정체성의 전환: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이다. 나눔은 이주민이 수혜자의 위치를 벗어나 ‘도움을 주는 존재’로 재정의되는 실존적 경험이었다. 봉사와 기부를 통해 자신이 사회의 일원임을 확인하며,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시민적 자부심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 둘째, ‘회복적 치유: 돌보는 자로’이다. 봉사와 기부는 낯선 사회에서의 외로움, 차별, 생계 불안 등 이주 경험의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는 정서적 통로였다. 타인의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는 나눔이 ‘내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기능하며, 이주민의 삶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치유적 경험이었다. 셋째, ‘사회 통합의 장: 적응을 넘어 통합하는 자로’이다. 나눔 활동은 언어 습득과 문화 이해를 비공식적으로 학습하는 사회화의 장이었다. 봉사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한국인 주민들과 협업하여 ‘평등한 시민’으로 관계를 맺는 경험은 사회 통합의 실질적 경로가 되었다. 넷째, ‘초국가적 실천: 국경과 세대를 연결하는 자로’이다. 많은 참여자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기부나 모금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송금 이상의 사회적 송금(social remittance)으로 가치와 연대의 전이를 포함했다. 그리고 나눔은 자녀 세대에게 시민적 책임을 전수하는 교육적 매개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이주민의 나눔 활동은 단순한 이타적 행위가 아니라 존재적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동반하는 복합적 실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주민의 나눔 동기는 주류 시민의 기부가 ‘사

회적 책임'에 기반한 것과 달리, '존재의 증명'과 '사회적 인정 욕구'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다음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봉사 활동을 언어 및 문화 교육과 연계한 '사회 통합형 실천 교육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민 단체의 비영리 조직화를 지원하고, 나눔활동 제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 및 사회적 부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주민의 나눔 활동 경험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성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며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재구성하는 실천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이주민, 나눔 활동, 봉사, 기부, 사회 통합, 정체성 전환, 초국가적 연대, 임파워먼트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 사회는 2024년 기준 체류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서며, 인구의 5%가 이주민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법무부, 2025).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시켰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은 이주민을 ‘지원의 대상’이나 ‘복지 수혜자’, 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타자’로 규정하는 데 머물러 있다(김현정, 2023). 기존의 다문화 정책과 선행 연구들 역시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동화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는 이주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고착화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여주는 역동성은 이러한 시혜적 관점의 재고를 요청한다. 이주민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자원과 재능을 활용하여 타인을 돕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active citizen)’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와 기부로 대변되는 나눔 활동(philanthropic activity)은 이주민이 주류 사회와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적 소속감을 획득하며, 시민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한다(Zhang et al., 2025).

서구의 선행 연구들은 이주민의 나눔 활동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주민 커뮤니티와 주류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적 사회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형성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arlà et al., 2023). 반면, 한국의 기존 연구들은 결혼 이주 여성의 자원봉사 경험이나 특정 집단의 제한적 사례에 집중되어 있어(김영수, 이연주, 2023),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주체들의 다층적인 나눔 실천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이주민의 기부 활동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부재한 실정으로,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이주민을 한국 사회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나누는 시민(giving citizen)’으로 재정 의하고, 그들이 실천하는 봉사 활동과 기부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 베트남,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고려인),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등 다양한 출신 배경과 체류 자격(난민, 유학생, 결혼 이주민, 동포 등)을 가진 이주민을 대상으로 심 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모국의 문화적 관습, 한국에서의 정착 경험, 그리고 이주민 커뮤니티 내의 상호부조 전통을 결합하여 독자적인 나눔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주민 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나눔 활동이 이주민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 사회 의 통합과 시민 참여와 나눔의 논의에 어떠한 함의를 던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 주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상호 호혜성에 기반한 진정한 다문화 사회 통합 정책 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이주민의 기부 및 나눔 활동에 관한 국제적 연구 동향

이주민의 기부 및 자선 활동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활동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통합 및 초국가적 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고한다.

1) 이주민의 봉사 활동

(1) 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 통합과 동기

Government of Canada(2022)에 따르면, 15세 이상 이주민의 약 40%가 자선 활동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캐나다 태생 시민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동기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구와 지지하는 대의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었다(Imagine Canada, 2024). 유럽 맥락에서의 종단 추적 연구(Carlà et al., 2023)는 자원봉사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주민과 비이주민 간에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함을 보였다. 특히, 자원봉사 참여는 거주 기간이 길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언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가 지역사회 연결, 긍정적 자존감, 취업 준비를 촉진하며, 심리적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fugee Council Australia, 2019). 필라델피아 연구(Ruiz Sportmann, 2022)는 자원봉사 이주민이 비자원봉사 이주민보다 더 강한 사회적 통합 감각을 형성하며, 거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 봉사 활동과 사회적 자본

이주민의 봉사 활동과 기부행위는 사회 통합과 심리적 안녕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Ruiz와 Ravitch(2022)의 연구에 따르면, 정규 봉사 활동은 이주민에게 사회적 주체성(agency)을 부여하고 수혜에 대한 보답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창출의 동기를 실현하게 하며, 인종·계급 등 교차적 불이익(intersectionality) 속에서도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난민 여성 연구(Panter-Brick et al., 2024)에서 난민 여성이 봉사 활동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인생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의를 강화하였다. 한편 망명자와 난민을 분석한 Ramachandran과 Vathi(2022)는 봉사 활동이 사회적 연결망 확장은 물론, 제한된 보조금을 보완하는 물질적 보상(교통비, 생필품 등)을 제공하여 생존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음을 규명했다. 그러나 일본 사례를 분석한 Miller 등(2020)은 봉사 활동 참여 여부 자체보다는 고립감 해소와 직업 만족도, 그리고 현지 사회와의 실질적인 연결감이 정신적 웰빙에 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밝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연결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Zhang et al., 2025)을 설명하면서 나눔 활동이 단순한 활동 참여를 넘어선 깊이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함을 드러내었다.

2) 이주민의 기부 활동

(1) 기부 활동과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

이주민의 기부 및 자선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잉여의 배분이 아닌, 주관적 인식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투영된 복합적 행위로 규명된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이주민의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본인의 경제력에 대한 긍정적 주관적 평가와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기부 행동의 주요 결정 요인임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Hillenbrand et al., 2025). 한편 디아스포라 맥락의 연구들(Mold, 2010; Dafallah & Witter, 2025)은 자선 활동이 본국의 보건 및 사회 복지 개선을 위한 전략

적이고 이타적인 송금 행위로 발현됨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종교적·역사적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면서도 정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효율적인 국제적 기부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초국가적 기부와 송금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DeSouza et al., 2023)는 가나의 이주민들이 종교적·문화적 소속감을 기반으로 기부에 참여하며, 개인 기부에서 집단 기부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주민의 나눔 활동이 출신국과의 정체성 및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을 돕고(Martinez-Damia et al., 2023) 이들의 기부의 동기는 순수한 이타주의와 자기 중심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혜자의 어려움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개인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다. 디아스포라의 재정적 기여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로의 송금 규모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2023년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송금액은 6,560억 달러에 달했으며,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송금이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디아스포라의 기부 활동이 단순한 자선을 넘어 출신국의 건강 시스템 회복력 강화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Dafallah & Witter, 2025). 또한, 네팔 디아스포라 연구(Thomas, 2020)는 초국가적 자원봉사가 금전적 송금을 넘어 사회적 송금(social remittances)—아이디어, 행동, 사회 자본의 비금전적 이동—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3) 이주민 나눔 활동의 저해 요인과 활성화 전략

우선 이주민의 주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개인적·문화적 장벽과 조직 간의 구조적 격차로 대별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에 따른 정보 접근성 제한, 언어 및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겪는 적응의 어려움이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주류 조직 대비 소수 민족 조직이 갖는 자원과 영향력의 구조적 취약성, 주류 조직의 포용적 아웃리치 부재, 그리고 소수 민족 조직의 내부 지향적 배타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이주민의 주류 사회 진입 장벽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Ramakrishnan & Viramontes, 2006). 또한 이

주민이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감정노동-과 정보 접근 장애 등(Spit et al., 2025)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이주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신뢰 형성과 조직 차원의 문화적 역량 함양을 기반으로 한 관계 중심적 접근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조직은 장기적인 관계 발전과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나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등을 포함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집단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종교 및 종합 서비스 단체나 언어적·법적 장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경 초월적 조직(Transnational Associations)을 시민 참여의 주요 경로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Caouette, 2006).

2. 이주민의 기부 및 나눔 활동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24)결과에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 인식은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수용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2024)는 자원봉사와 동호회 활동 참여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다문화 교육만 참여한 집단보다 다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한 집단이 수용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봉사와 기부 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를 격려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참고).

1) 이주민의 봉사 활동

Choi(2024)는 2019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의 행복 결정 요인을 규명했다. 높은 수준의 사회 참여가 다문화 가족의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임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전략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직접적인 이주민 봉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자원봉사 경험

은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생활 만족도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김영수와 이연주(2023)는 결혼 이주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 유형을 ‘사회 구성원이 되어 참여하기’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 두 가지로 규명했다. 두 유형 모두 자원봉사가 배움과 삶의 즐거움을 연결하는 실천 교육의 장이자, 자신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통로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결혼 이주 여성 연구(김미희, 2013)는 임파워먼트 경험이 취업 활동의 어려움을 이기고 긍정적 변화 경험으로 강화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개인적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했다. 선배 이주민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후배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강사로서 인식 개선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통합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법무부, 2024).

2) 이주민의 기부 활동

국내 이주민의 기부 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Kim(2017)은 이주민의 사회 자본을 분석하며, 같은 배경의 이주민과 형성하는 결합형(bonding) 사회 자본과 지역사회 원주민과 맺는 교량형(bridging) 사회 자본 모두가 사회 통합의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혈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Kim et al.(2022)은 한국 거주 이주민의 현혈 경험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 응답자의 28.6%가 과거 현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의 실제 현혈 경험은 2.7%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임을 밝혔다. 이들은 기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에 대한 공포와 절차 및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이 참여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이주민 기부 활동에 정보 접근성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주민의 기부 활동에 관한 최근의 학술 연구들은 이주민들이 거주국과 출신국에서 모두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주류 사회 시민의 나눔활동 동기가 ‘사회적 책임감’이나 ‘개인적 자아 실현’에 집중되어 있고(아름다운재단, 2022), 나눔이 사회화된 시민성의 실천이자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임과는 달리, 이주민의 나눔 활동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돕고, 나아가 초국가적 연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의 이주민의 나눔 활동 관련 제도

1) 나눔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통합 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무부, 2019, 제1조).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법무부, 2019, 제11조). 이 법 제14조의2는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 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 기여자 등에 대하여 초기 생활 정착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 공헌을 한 외국인의 사회 참여를 명시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법무부, 2019, 제14-2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법무부, 2019, 제10조). 특히 사회 통합 프로그램(Korean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 KIIP)은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 이해 능력, 기초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한다(서울글로벌센터, 2018).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는 비자 심사에서 가산이 있으며(법무부, 2025), 재한 외국인과 이주민들의 자발적 봉사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제로 점수를 부여받거나 한국어 능력 입증이 면제되며, 일부 비자 유형(예:

E-7, D-8 등 전문직 비자)의 심사 시에도 KIIP 이수 여부가 ‘사회적 적응력’ 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이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단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의 사회적 신뢰도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공식 인정하는 의미이다(남성희, 2025).



[출처] 코워크 홈페이지(<https://kowork.kr/blog/volunteerwork>)

예를 들어, 외국인 전용 채용 플랫폼에서 위와 같은 안내를 하고 있다. 이주민과 외국인에게 나눔 활동은 그들의 한국 정착을 위한 노력-사회 기여 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 활동이다. 이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봉사 활동은 환경 봉사, 교육 및 언어 지원, 헌혈, 행사 지원 등이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적극적 사회 참여 기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적응 교육, 직업 교육·훈련,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사회 적응을 위한 이주민 가족의 사회 참여와 자원 봉사 활동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8, 1,6,11조).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외국인의 평등한 참여 보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원봉사를 추진하며,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2006, 제2조). 이 법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원봉사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 보호,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호 등이 포함된다(국회, 2006, 제10조). 이러한 보호 규정은 외국인 자원봉사자도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에 더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봉사 활동을 통해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타인과의 협력과 공감 능력, 사회 정의와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8). 특히 외국인들의 자원봉사는 공공 외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자원봉사를 단순 민간 차원의 나눔을 넘어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사회 통합의 기제로 보는 정책적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외국인 조직화 가능성

외국인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 주목적, 불특정 다수 수혜, 구성원 상호 이익 분배 금지,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행정안전부, 2012).

이러한 해석은 외국인이 비영리 활동을 주체적으로 조직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 공동체의 자조 조직화와 기부 활동의 공식화를 촉진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이 최소 100인 이상의 구성원을 모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소규모 이주민 집단의 단체 등록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법제처, 2012).

또 다른 경로는 ‘임의단체(단체 고유번호증 발급)’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단체 명의의 계좌 개설, 자산 관리 등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공동체의 기부금 관리와 자원봉사 활동비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이주민이 자신의 공동체 활동을 법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5)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과 인센티브 제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이지은 외, 2025)에 따르면, 경기도민은 기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적 행복감’ (32.8%)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32.1%)을 꼽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기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기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기부 인센티브 제도 도입, 체험형 기부 교육, 새로운 유형의 기부 활성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부 활동을 리워드로 적립하여 지역 화폐로 제공하는 ‘기부 기회 소득’ 제도,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기부 자상 제정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도가 강조되고 있다(이지은 외, 2025).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기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나눔 활동을 제한하는 제도

위에서 기술한 촉진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예산의 충분한 확보, 지역별 인프라 확충, 그리고 제도와 현실의 괴리 해소 등이 필요하다. 특히 체류 자격별 차등 제약과의 조화,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그리고 장기적 이민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등이 한국의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 제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1) 정치 활동 및 정치 자금 기부의 전면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이 자신의 이익과 정책 제안을 대의 기구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 경로를 봉쇄한다. 또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 자금 기부는 전면 금지되어 있다(제31조 제1항). 이러한 규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사회복지법인 임원 구성의 정량적 제약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5항은 외국인인 이사를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 복지 기관의 거버넌스 구조상 외국인의 의사 결정 권한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므로,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사회 복지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사의 과반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기부자나 자원봉사자가 공익법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데 추가적 제약을 부과한다.

(3) 기부금 세제 혜택의 선별적 적용

외국인의 기부금은 세액 공제의 대상이 제한적이다. 해외 소재 자선 단체나 종교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오직 한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종교 단체의 소속 단체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 정산 절차에서 제공되는 기부금 공제 혜택이 내국인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의 기부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4) 체류 자격별 자원봉사 활동의 차등 제약

외국인의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은 보유한 체류 자격의 성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E-1(교수), E-2(회화지도) 등 전문 기술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의 활동이 제한되므로, 봉사 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E-8(계절근로) 비자의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가 원칙적으로 불허되어 있으며, 이는 계절 근로자의 사회 통합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반면 F-1(방문동거) 비자 소지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금지되므로, 자원봉사 중에서도 실비 이상의 이득이 발생하거나 육체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은 불법 근로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5) 이민 정책 거버넌스의 체계적 부재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외국인고용법 등이 서로 다른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자원봉사나 기부 활동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어렵게 한다. 특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임을 선언하면서도, 외국인의 사회 참여 기회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모순을 보인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현행 제도는 외국인의 자원봉사와 기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적응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교육 및 생활 지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의 평등한 참여 보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의 진입 장벽 완화, 글로벌 시민 포럼 등 정책적 활성화 노력, 그리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외국인의 봉사 활동과 기부 활동에 대해 정치적 통제 강화, 구조적 지배권 제한, 행정적 규제 확대, 체류 자격별 차등 제한 등 다층적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들이 외국인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한편, 국제적 사회 통합 지표상으로는 한국의 순위를 낮

추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이민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면, 정치 자금 기부 금지 조항의 재검토, 임원 구성 비율의 합리화, 기부금 세제 혜택의 확대, 체류 자격별 차등 제약의 완화 등 입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1차 및 2차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이주민 당사자와 함께 일하는 기관의 종사자들로부터 나눔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았다.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방식을 사용하여, 핵심 정보 제공자(gatekeepers)와 제보자(informants)를 통해 잠재적 면접 대상자를 추천받아 진행했다. 기부 활동을 중심으로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섭외 과정에서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 중 기부 활동도 하는 분들로 최종 섭외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여, 북한, 베트남,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등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이주민 총 11명을 최종 참여자로 선정했다. 자료 수집은 1:1 또는 2:1 심층 인터뷰 형태로, 대면 및 줌 화상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참여자 동의서(영문 및 한글 제공)를 수령했다. 인터뷰 시작 전에 연구 윤리에 대한 고지를 다시 하였고, 최종 구두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30분~2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녹음 후 문서로 녹취하였고 자료들은 A4 208페이지 분량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는 총 11명의 이주 배경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북한(2인), 베트남(2인), 몽골(2인), 미얀마(1인), 우즈베키스탄(1인), 콩고민주공화국(2인), 중국(1인)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한국 거주 기간은 최소 2년 2개월(G)에서 최대 25년 2개월(E)로 장기 거주자가 다수였으며, 11명 중 8명이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F-5)을 취득한 상태로, 한국 사회에 정착한 비중이 높았다. 직

업적으로는 사회복지사, 강사, 코디네이터, 사례관리자 등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번호	코드	출생국	직업	연령	한국 거주 기간	국적	체류 자격
1	A	북한1	사업	40대	23년 5개월	한국	국적 회복
2	B	북한2	사회복지사	50대	22년 2개월	한국	국적 회복
3	C	베트남1	주부	40대	17년 3개월	한국	귀화
4	D	베트남2	학생	30대	9년 6개월	한국	귀화
5	E	몽골1	사회복지사	40대	25년 2개월	한국	귀화
6	F	몽골2	가족센터종사자	40대	21년 3개월	한국	귀화
7	G	미얀마	학생	20대	2년 2개월	미얀마	D-2
8	H	우즈베키스탄	코디네이터	60대	21년	우즈베키스탄	F-4
9	I	콩고민주공화국1	사례관리자	30대	15년 2개월	콩고민주공화국	F-5
10	J	콩고민주공화국2	영어강사	40대	21년	한국	귀화
11	K	중국	강사	40대	23년 4개월	한국	귀화

3. 주요 인터뷰 가이드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나눔 활동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나눔 활동 참여 경험: 지금까지 어떤 나눔 활동(기부,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 보았는지,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나눔은 어떤 의미인지.
2. 문화적·사회적 맥락: 출신국에서는 나눔이나 기부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국에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나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3. 정체성과 사회적 소속감: 나눔 활동을 통해 겪은 변화는 무엇인지, 나눔 활동이 본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시민으로서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IV. 연구 결과

1. 이주민의 나눔 활동의 특성

연구 참여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활발한 봉사 및 기부 활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표 2〉 이주민 나눔 활동의 특성

코드	봉사활동 내용	기부·후원 활동 내용
A	하나센터 취업자 지지자 모임 운영, 김장·독거노인·고아원 봉사	무연고 탈북대학생·아동공부방·북한인권 등 정기후원(월100만원+)
B	어르신 목욕·응급실 안내·아동학습 지원·정착도우미	인권·아동·장학·다문화센터 후원, 강의료 기부(월30만원 정기)
C	의용소방대·출입국 안내·통번역·적십자·방범대 봉사	아프리카 아동 정기기부, 재난지원 기부
D	출입국 통역, 이주노동자 인권상담·시위참여	아동 3곳 정기후원, 재난·고향 커뮤니티 모금
E	복지 도우미, 다문화센터 통번역, 국제교류 워킹그룹 활동	여성인권센터·적십자 후원, 몽골 환아 수술비 모금
F	다문화교육 강사, 인형극·급식봉사	다문화도서관·몽골 물품지원·산불피해 기부
G	코이카·라이온스 통역, 노동자 안전교육, 출입국 안내	유치원·고아원 기부, 폭우피해 모금(30만원)
H	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독거노인 반찬 나눔	반찬 나눔 시 복지관·센터 연계 지원
I	인권센터·난민지원 통역, 의용소방대, 여성공동체 운영	보훈노인 대상 음식 나눔
J	교회 교육·연주봉사·멘토링·난민여성 지원	인권·변호사단체 정기기부(10년 이상)
K	협동조합 운영, 복지관 강사, 자녀봉사, 환경정화	지역·해외 재난 시 기부, 장터수입 10% 기부

1) 이주민 봉사 활동의 경험

참여자 A는 과거 하나센터의 취업자 모임을 통해 급여의 1%를 적립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사회 의 독거 노인과 고아원을 방문하거나 김장 봉사를 수행하는 등 동료 탈북민들과 연대하여 활동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활동이 축소된 상태이다.

참여자 B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어르신 목욕 및 이동 봉사, 병원 응급실 안내, 아동복지센터에서의 학습 지도 및 조리 봉사(떡볶이 등), 그리고 초기 입국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도우미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마라톤을 통해 기부로 이어지는 ‘기부런 (Give Run)’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 C는 입국 초기 한국어 습득과 사회 적응을 위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시작하여 심폐 소생술 교육 및 화재 예방 캠페인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10년 이상 지속하였으며, 야간 자율 방범대 활동을 통해 여성들의 귀갓길을 동행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과 통역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 밀착형 봉사를 전개해 왔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참여자 D는 이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가로서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를 겪는 동료 이주민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통역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연대 및 옹호 활동(Advocacy)에 주력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 안내 봉사를 병행하는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개입을 실천하고 있다.

참여자 E는 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지자체 시민그룹(Rainbow ***Group)에 소속되어 약 7년간 본국과 한국 간의 국제 교류 행사를 지원하거나 통·번역을 수행하는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보노(Pro Bono) 형태의 봉사를 주도적으로 실천하였으며, 동료 이주민의 병원 이용이나 행정 업무를 돕는 비공식적 생활 봉사를 병행하여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참여자 F는 도서관 및 다문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자국 문화를 알리는 인형극과 강의를 재능 기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1년간 급식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선주민 학부모 및 아동과의 사회적 접점을 능동적으로 넓혀 갔다.

유학생인 참여자 G는 한국 의료진의 미얀마 봉사 활동 시 의료 통역을 지원하거나 한국 내 이주민을 위한 건강 검진 및 고용노동부 상담 통역을 수행하는 등 본국과 한국 사회를 잇는 언어적·전문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포인 참여자 H는 밀집 거주지(땃골마을)의 통장 및 자율방범대장으로 활동하며 우범 지역 순찰, 쓰레기 무단 투기 관리, 행정 서류 작성 지원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기초 질서를 유지하는 현장 밀착형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참여자 I는 난민 여성 자조 모임을 조직하여 대표로 활동하며, 갓 입국한 난민들의 초기 정착을 위한 통·번역 및 병원 동행, 행정 처리를 지원하는 등 동료 상담가(Peer Counsel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콩고 야채를 재배하여 나누거나 음식 축제를 열어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등 문화적 매개자로서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참여자 J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의 영어 회화 강의와 다문화 이해 교육,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학습 멘토링 등 자신의 언어적·지적 자산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교육 중심의 재능 기부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K는 이주민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학교와 도서관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춤과 악기 연주 등 문화 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 노인들에게 재능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 기부 활동의 경험

참여자 A는 모교 장학금 등에 부부 합산 월 약 30만 원을 정기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연고가 없는 북한 이탈 주민 대학생 4명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 아동 공부방에 간식을 후원하며, 세이브***, 기아***과 같은 국제 구호 단체 및 북한 인권 단체에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참여자 B는 매월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다양한 경로로 후원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N*** 후원을 시작으로 여성 인권 단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굿네***, 특강료 등 외부 수입은 별도로 저축하여 향후 고향을 위해 사용할 ‘고향 사랑 기부금’을 마련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참여자 C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1~5만 원 내외의 소액을 수시로 후원하거나 생리대와 같은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여 전달하는 등, 금액의 크기보다는 진심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차원의 나눔을 중시한다.

참여자 D는 베트남 이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본국의 재난 피해나 고향 마을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집단적·조직적 기부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C와 D 모두 한국 내 산불이나 태풍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도 공식적인 모금처를 통해 기부에 동참하는 등 이주민 공동체와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참여자 E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여성 인권 센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돕기 위해 정기 후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적십자 등 국내 구호 단체에도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참여자 F는 정기 후원보다는 재난이나 긴급 구호 요청 시 해당 활동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소액을 후원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특히 두 참여자 모두 이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질병, 사망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전달하는 집단적 상호부조(Mutual Aid)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주민 사회 내부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여자 G는 자신의 생일에 선물을 받는 대신 고아원이나 타인에게 금품을 후원하는 미안마의 전통적 문화를 한국에서도 지속하며 ‘생일 기부’라는 개인적 의례를 실천하고, 주변 이웃과 본국 음식을 나누며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

참여자 H는 연고가 없는 동포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장례 절차를 지원하거나 병원비를 보조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생존을 위한 상호부조 성격의 나눔을 주도하고 있다.

참여자 I는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이웃 및 센터 직원들과 나누거나, 보훈 노인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기도 하였다. 자신의 시간과 지식을 할애하여 타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청하고 위로하는 정서적 나눔을 ‘돈보다 귀한 기부’로 인식하고 실천한다.

참여자 J는 개인이 모든 난민을 도울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지하고, 유니***와 같은 전문 구호 단체를 통해 본국의 난민이나 아프리카 아동을 정기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접적·제도적 기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난민을 돕고 있는 인권 변

호사 단체에 10년 이상 정기 기부하고 있다. I와 J 모두 참여자 모두 공동체 내부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십시일반으로 돕는 상호부조의 문화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이주민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참여자 K는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기부나 필리핀 수해 복구 지원 등 국가적·초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협동조합 구성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물품과 성금을 모금하며 장터를 열어 수입의 10%를 기부하거나, 지역이나 해외의 재난 재해시에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인도주의적 기부를 확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 정착 이후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노력 봉사와 제도적·비공식적 차원의 물질적 기부, 현장 밀착형 생활 봉사와 권리 옹호 중심의 활동,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후원과 공동체 기반의 기부로 구체화된다.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각자의 이주 배경과 커뮤니티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형태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모국에서의 공동체 경험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을 통합하여 독자적인 나눔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전문적 역량을 활용한 사회 참여형 봉사 활동과 이주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상호부조적 기부 활동으로 대별된다. 전문적·조직적 및 문화적 관습에 기반한 기부 활동을 통해서 이주민이라는 특수한 지위 속에서도 수혜자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환원하는 주체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 이주민 나눔 활동의 의미

이주민 참여자들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이주민의 나눔 활동 경험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수렴되었으며, 이는 이주민의 정체성, 사회 적응, 그리고 심리사회적 통합과 복지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주민 나눔 활동의 의미 분석 결과

의미	설명	하위 범주
1. 정체성의 전환: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이주민의 나눔은 수혜자에서 제공자로서의 지위의 변화를 의미 보은의 윤리에서 출발하지만, 도움 받는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는 경험	① '도움 받는 자'에서 '도움 주는 자'로의 정체성 전환과 존재감 회복 ② 경제적 자립에 기반한 감사의 실천: '내 손으로 일구는 나눔' ③ 호혜적 관계망의 확장과 시민적 역할 수행: 이주민이 돌보는 한국 사회
2. 회복적 치유: '돌보는 자'로	이주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외로움을 타인 돕기를 통해 치유 동료 이주민의 상부상조로 고립에서 벗어나는 경험	① 내면의 회복과 심리적 치유의 기제 ② 수혜자에서 주체적 행위자로의 정체성 전환: '정서적 풍만감' ③ 사회적 인정과 자존감의 고취
3. 사회 통합의 장: 적응을 넘어 '통합하는 자'로	나눔 활동은 비공식적 사회화의 통로가 되어 언어, 문화, 제도를 경험하는 기회 동료 시민으로 평등한 관계로 일상적으로 나눔을 내면화	① 사회문화적 적응과 언어 습득의 가속화 전략: '교실 밖의 학습' ②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적 정체성 확립 ③ 문화적 자본을 통한 전문성 인정과 탈(脫)범주화의 실천
4. 초국가적 실천: 국경과 세대를 '연결하는 자'로	이주민의 나눔은 고향과의 정서적 유대와 사회적 연대의 장 다음 세대에 나눔의 가치-마음의 관계를 전수	① '못 다 이룬 사랑'의 승화와 대리적 보상 ② 본국의 위기에 대응하는 초국가적 인도주의 실천 ③ 물질을 넘어선 공감과 정서적 연대의 가치

1) 정체성의 전환: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 정착 초기의 결핍과 의존성을 극복하고, 나눔 활동을 통해 타인을 돕는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재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주제는 ① ‘도움 받는 자’에서 ‘도움 주는 자’로의 정체성 전환과 존재감 회복, ② 경제적 자립에 기반한 감사의 실천, ③ 호혜적 관계망의 확장과 시민적 역할 수행이다. 이주민에게 나눔은 수혜자에서 기여자로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시민적 주체성을 느끼는 과정이었다.

① ‘도움 받는 자’에서 ‘도움 주는 자’로의 정체성 전환과 존재감 회복

참여자들에게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겪었던 ‘결핍’과 ‘약자성’을 극복했음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이들은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과거의 자신을 투영하며, 현재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깊은 자부심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D는 초기 정착 시 겪었던 무력감을 극복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변화 자체에서 감동을 느꼈다. D에게 나눔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음을 확인하는 지표이자,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다.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로 되게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면 제 존재의 의미가 더 깊이 느껴집니다.” (참여자 D)

J 역시 난민으로서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과거의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능동적인 제공자’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했다.

“사실 2004년 난민 신청 했는데 2012년 2년 연금 받았어요. 둘째는 다른 난민 볼 때 사실 도움이 필요했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도우나 하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도 사실 기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모든 난민 보면 도와주는 마음은 많은데 다 할 수 없

어요. 근데 잘 아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난민들이 또 이렇게 선물 줄 수 있어요.” (참여자 J)

② 경제적 자립에 기반한 감사의 실천: ‘내 손으로 일구는 나눔’

자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대비되는 한국에서의 노동 기회는 나눔의 물적 토대가 되었다. 참여자 A에게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은 그 자체로 감사와 긍지의 원천이다. 이는 단순히 잉여 자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생존을 넘어 타인을 돌볼 수 있다는 ‘행위 주체성(Agency)’의 회복을 의미한다.

“저 올 때 여기 와서부터 무조건 100%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했던 게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도 남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남을 수가 있자나요. 거기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나라 경제가 다 망개지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나라에서 그렇다고 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데가 없고 해도 돈이 안 나오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딱 오니까. 여기서는 설거지를 하든 서빙을 하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참여자 A)

③ 호혜적 관계망의 확장과 시민적 역할 수행: 이주민이 돌보는 한국 사회

나눔 활동의 대상이 동료 이주민을 넘어 한국 사회의 취약 계층(독거 노인 등)으로 확장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이는 이주민이 주변부의 이방인(Stranger)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지탱하는 ‘시민적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 I는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이웃 및 센터 직원들과 나누거나, 보훈 노인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기도 하였다. H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한국인 독거 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돌보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 이주민을 돕는 구도’를 역전시킨 것으

로,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병 걸리고 집에서.. 나도, 선생님들도 그거 다 발굴을 해 발굴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가보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럼 냉장고도 봐도 되냐 하고 다 열어봐요.” (참여자 H)

2) 회복적 치유: ‘돌보는 자’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나눔 활동을 통해 이주 초기의 혼란과 결핍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도출된 주요 주제는 ① 내면의 회복과 심리적 치유의 기제, ② 수혜자에서 주체적 행위자로의 정체성 전환, ③ 사회적 인정과 자존감의 고취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는 이주민의 나눔 활동이 회복과 주체성 확립으로 가는 여정임을 보여준다.

① 내면의 회복과 심리적 치유의 기제

이주민들에게 나눔 활동은 이주 과정에서 겪는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소진(Burnout)을 극복하는 ‘치유의 도구’로 작용했다. 이는 신체적 활동을 매개로 한 자기 대화 혹은 타인의 고통을 경청하는 정서적 교류의 형태로 나타났다.

참여자 A는 심각한 번아웃 상황에서 ‘기부런(Give Run)’이라는 신체적 나눔 활동을 통해 자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A에게 달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만나는 ‘대화의 시간’이었다.

“해봤더니 저녁에 깜깜한데 너무 후덥지근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만나야 된다고 언니 집에 갈 생각하지 말라

고 1박 2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래 하자 그랬죠. ... 그게 나와의 대화였고 그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였고 그것도 나도 구멍을 찢 구멍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다 접해보다가 배드민턴도 해보고 탁구도 해보고 우리 중에 운동 탁구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도 있어요. 일산에 찾아가서 탁구도 배우고 그러다가 뽀박질을 해보니까 달리는 동안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참여자 A)

한편, J는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서 봉사’를 선택했다. J는 난민 초기 스트레스를 겪는 동료 이주민이나 한국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아픔을 해소하고 정서적 연대감을 형성했다.

“근데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야기하고 싶고 그날 이야기하고 주는 사람 없어요. 사실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 이렇게 다른 분한테 큰 문제 있을 때 자주 연락 와요. 나한테 말해요. 저는 요즘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는 그냥 들어요. 근데 사실 한국 아줌마들이 어떤 일도 있어요? 수업 할 때 어떤 사람 그냥 계속 말 해요. 요즘에 우리 집안에 영어로 우리 집안에 이런 거 있어. 근데 잘 들어요. 듣고 그럼 계속 나한테 이런 것만 나와요. 선생님 진짜 우리는 말하는데 잘 들어요. 이렇게 사실 봉사예요.” (참여자 J)

② 수혜자에서 주체적 행위자로의 정체성 전환: ‘정서적 풍만감’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이주민이 또 다른 타인을 돕는 행위는 ‘도움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라는 수동적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행위자(Giver)’라는 능동적 위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이주민들에게 강력한 효능감과 긍지를 부여한다.

참여자 B는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주민들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그들이 느끼는 ‘정서적 풍만감’을 목격하며 인식을 전환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나눔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주민들에게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 처음에는 좀 약간 저도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약간 그냥 저 할 수 있지 이랬었는데 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분들이 어느 날 뭔가 나누는 걸 통해서 본인들이 거꾸로 자기들이 마음적으로도 정서적인 풍만감을 누군가 느끼고 있어요. 모여 앉아서 이제 그 무언가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적어도 나 비록 지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도 있지만 나 또한 누군가한테는 뭔가를 조금이나마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긍지감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게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죠.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이해가 된다.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B)

③ 사회적 인정과 자존감의 고취

나눔 활동은 주류 사회(한국인)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참여자 F는 봉사 활동을 통해 자국의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고, 한국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위축되었던 자존감을 회복했다. 한국인들의 “잘한다”, “괜찮다”라는 긍정적 피드백은 F에게 단순한 칭찬을 넘어, 한국 사회 내에서 자신이 유능한 존재임을 확인받는 ‘사회적 승인’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받기 되게 싫어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내 뇌라 나는 몽골에서 왔다. 몽골에는 이런 것도 있다. 되게 자원도 많고 자연도 좋고 이런 거를 소개하면 서 저도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말하는 인식이 아니다. 저희 나라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되게 잘한다. 한국어도 잘한다 괜찮다 잘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더 자신감을 얻고 되게 더 하고 싶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 F)

3) 사회 통합의 장: 적응을 넘어 ‘통합하는 자’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나눔 활동을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거나,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류 사회의 인정을 획득하는 통로로 삼았다. 나아가 이들은 ‘이주민’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보편적 ‘사람’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하며, 나눔을 통해 사회적 편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출된 주요 주제는 ① 사회문화적 적응과 언어 습득의 가속화 전략, ②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적 정체성 확립, ③ 문화적 자본을 통한 전문성 인정과 탈(脫)범주화의 실천이다.

① 사회문화적 적응과 언어 습득의 가속화 전략: ‘교실 밖의 학습’

참여자들에게 나눔 활동은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는 ‘실전 학습의 장’으로 기능한다.

참여자 C는 정형화된 한국어 교육 대신 의용소방대 활동을 선택했다. C에게 가정 내의 독학이나 남편과의 대화는 한계가 있었으나,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봉사 활동은 한국인들의 실제 소통 방식과 피드백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는 나눔 활동이 타인을 돕는 행위를 넘어, 이주민 스스로가 한국 사회의 문법을 익히고 적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생존 전략임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제가 한국 사회를 원래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도 많이 낯설고 한국 문화 낯설고 한국 여러 가지 엄청 어려운 게 엄청 많아요. 문화랑 언어랑 다 어려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집에서 그 당시에 제가 한 20년 전 거의 다문화 가족인지도 몰랐어요. 당시에 남편은 한국어 와 베트남어 같이 써주는데 공부가 잘 안 됐어요.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사회에 나가서 첫 번째는 사람 만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 나누는지 보면 도움이 돼요.” (참여자 C)

②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적 정체성 확립

장기 거주 이주민들에게 나눔 활동은 자신이 ‘외국인’이 아닌 ‘지역 주민’임을 확인하고, 한국 사회와 운명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행위이다.

참여자 K는 자신을 “진정한 한국 사람”으로 규정하며, 자신이 사는 지역을 “나의 집”으로 인식했다. K에게 봉사는 손님(Guest)이 아닌 주인(Host)으로서 지역사회의 안녕을 책임지는 시민적 의무의 발로이다. “한국이 잘 살아야 우리도 행복하다”는 진술은 이주민의 이익과 한국 사회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통합된 시민 의식을 드러낸다.

“저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되고 이제는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는 진정한 한국 사람이다. 내가 살던 지역이다. 나의 집에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는 한국 사람이고 혼란스러울 때 있지만 그래도 벌써 20 몇 년 살고 있고 나중에도 또 1년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 나라가 잘 살아야 저희들도 행복하고요. 중국 가도 자기 고향 가도 나는 잘 살고 있다 자랑스러울 수 있잖아요.” (참여자 K)

③ 문화적 자본을 통한 전문성 인정과 탈(脫)범주화의 실천

이주민들은 자신의 이중 언어 능력이나 문화적 배경을 ‘자원(Resource)’으로 활용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사회가 규정한 ‘약자’ 혹은 ‘이방인’이라는 범주 혹은 구분에 저항한다.

E는 통번역 봉사를 통해 한국인들로부터 “너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인정을 받았다. 이는 시혜적 대상으로서의 이주민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지닌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능감은 위축되었던 자아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킨다.

“몽골 관련된 홍보하고 여러 가지 돈 번역 지원하고 그랬을 때 같이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너무 저희를 너무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없었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인정해 주고 이런 거가 느껴지니까 나 도 이제 막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약자가 아니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E)

한편, I는 봉사 현장에서 끊임없이 ‘난민’, ‘결혼 이민자’ 등으로 구분 짓는 한국 사회의 분류 체계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I에게 나눔 활동은 이러한 꼬리표를 떼고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항적 실천의 성격을 띤다.

“내가 생각할 때는 신촌 봉사 진행 할 때는 카테고리 없어 그냥 사람으로 했어요. (나누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모두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난민 외국인 결혼 이민자 이런 거 나누는 한국 진짜 제일 문제예요. 이런 거 나누면 사람들이 또 이거 누구예요? 그냥 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또 시스템 바꾸면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I)

4) 초국가적 실천: 국경과 세대를 ‘연결하는 자’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눔 활동은 물리적으로 단절된 고향(본국)과의 심리적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감이나 그리움을 해소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나눔을 통해 본국의 위기에 대응하거나(초국가적 실천), 한국의 소외 계층에게서 고향 가족의 모습을 투영하여 돌봄을 제공(대리적 보상)한다. 주요 주제는 ①‘못 다 이룬 사랑’의 승화와 대리적 보상 심리, ② 본국의 위기에 대응하는 초국가적 인도주의 실천, ③ 물질을 넘어선 공감과 정서적 연대의 가치로 범주화할 수 있다. 여기서 이주민에게 나눔 활동은 시공간을 초월한 연대이며, 고향에 대한 사랑의 승화와 초국가적 돌봄을 의미하였다.

① ‘못 다 이룬 사랑’의 승화와 대리적 보상

참여자 B의 진술은 이주민의 봉사 활동 이면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라는 심리적 동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B는 한국의 소외 계층(독거 노인 등)을 도우며 고향에 두고 온 부모나 형제를 떠올린다. 이는 물리적으로 돌볼 수 없는 고향의 가족 대신 한국의 이웃을 돌봄으로써 심리적 부채감을 덜어내는 ‘대리적 보상’ 행위이자, 고향을 향한 ‘못 다 이룬 사랑’을 한국 사회에서 실천적으로 승화하는 과정이다.

또한, B는 미래에 고향(북한)으로 돌아갈 상황을 대비하여 강의료를 저축하는 등, 현재의 나눔 활동을 미래의 고향 재건과 연결하고 있다. 이는 나눔이 단순한 현재의 만족을 넘어, 미래의 귀환을 준비하는 희망의 근거가 됨을 보여준다.

“언젠가 고향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외부에 나가서 특강하고 강의하고 했던 돈들은 다 기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딱 보고 생각하는 순간 별도의 지금부터 내가 그러면 차곡차곡 모아야 되겠다. 언젠가 고향에 가게 되면 그때 내가 고향을 위해서 좋은 일에 내놓을 수 있게끔 뭔가 조금씩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해서 가져오는 돈들은 따로 (모아둡니다)” (참여자 B)

② 본국의 위기에 대응하는 초국가적 인도주의 실천

참여자 G의 사례는 이주민의 나눔이 국경을 넘어 본국의 정치적·자연적 재난(쿠데타, 지진 등)에 대응하는 ‘초국가적 구호 활동’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G는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본국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식하며, 모금과 물품 지원을 통해 본국 시민들과의 연대를 지속한다. 이는 이주민이 ‘떠나온 자’가 아니라, 여전히 본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적 주체’임을 증명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군인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피해를 많이 당하는 우리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일날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요. 밥이나 필요한 거 이렇게도 기부하고 그리고 우리 그거 4월 말쯤에 우리 나라에서 지진 많이 났잖아요. 되게 많이 두 번 세 번째 도시가 망가지는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도 어제도 많이 심했대요. 지진 저도 그때 기부를 했어요.” (참여자 G)

③ 물질을 넘어선 공감과 정서적 연대의 가치

참여자 C는 나눔의 정의를 물질적 지원에서 ‘마음, 공감, 진심’으로 확장한다. B는 이주민들이 봉사하는 이유가 고향 사람들을 돕는다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고향에 대한 고향에서 다 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보면 뭐라고 하나면요. 봉사하는 이유 이유를 제가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내 동생 같아서 내 옆집에 누구 같아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결국은 뭐야 고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향한 이 사람들이 채워지지 못한 채우지 못해 하고 싶었으나 못한 거에 대한 거를 여기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다 이룬 사랑에 대한 갈망” (참여자 B)

또한 참여자 C가 언급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은, 이주민들이 낯선 땅에서 겪었을 외로움과 고립감을 반영한다. 즉, 이주민들은 자신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따뜻한 말 한마디(정서적 지지)’였음을 알기에, 타인에게도 물질보다는 ‘존재론적 공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나눔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려는 보편적 인류애의 실천으로 해석된다.

“저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고 공감 진심 관심으로 나눠 봅니다. 그러면 나눔에는 꼭 돈이나 물건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마음이라도 나눠가거든요. 네 작은 나눔도 작은 마음으로...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다가가서 좋은 말 한마디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다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그러면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참여자 C)

이상에서 이주민의 나눔 활동과 경험의 의미는 네 가지 핵심 주제로 수렴되었다. 첫째, ‘정체성의 전환: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이다. 나눔은 이주민이 수혜자의 위치를 벗어나 ‘도움을 주는 존재’로 재정의되는 실존적 경험이었다. 봉사와 기부를 통해 자신이 사회의 일원임을 확인하며,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시민적 자부심을 획득하고 존재를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둘째, ‘회복적 치유: 돌보는 자로’이다. 봉사와 기부는 낯선 사회에서의 외로움, 차별, 생계 불안 등 이주 경험의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는 정서적 통로였다. 타인의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는 행위를 “내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나눔은 단순한 타인 돌봄이 아니라 자기 돌봄(self-healing)의 과정으로 기능하며, 이주민의 삶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치유적 경험임이 드러났다. 셋째, ‘사회 통합의 장: 적응을 넘어 통합하는 자로’이다. 나눔 활동은 언어와 문화를 비공식적으로 학습하는 사회화의 장이었다. 봉사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으며, 봉사 현장에서 한국인 주민들과 협업하여 ‘평등한 시민’으로 관계를 맺는 경험은 사회 통합의 실질적 경로가 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이주민의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는 논의를 구체적 경험 수준에서 입증해주었다. 넷째, ‘초국가적 실천: 국경과 세대를 연결하는 자로’이다. 많은 참여자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기부나 모금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송금이 아닌 사회적 송금으로, 가치·지식·연대의 전이를 포함했다. 나눔은 국경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도구이자, 자녀 세대에게 시민적 책임을 전수하는 교육적 매개가 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I) 선행 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 결과는 이주민의 나눔 활동이 사회 통합과 임파워먼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서 몇 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의 전환’은 이주민의 임파워먼트에 나눔 활동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확히 드러낸다. J의 “드디어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라는 감정은, 자원봉사가 난민 여성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인생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의를 강화한다는 중동 난민 여성 연구(Panter-Brick et al., 2024)의 결과와 유사하게, 심리적 안녕감 및 자존감의 직접적인 동인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연구(김미희, 2013)에서도 취업 및 자원봉사 활동이 이주 여성의 개인적 역량 강화와 주체성 회복(임파워먼트)에 기여함을 보였다.

둘째, 나눔 활동은 사회 통합의 비공식적 경로로 자원봉사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것을, C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봉사 활동이 정규 교육보다 우선적인, 가장 효과적인 비공식적 사회화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봉사 활동은 언어 숙련도 부족(Carlà et al., 2023)이라는 장벽을 활동 과정에서의 협업을 통해 극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연결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Zhang et al., 2025).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A, B 이주민들의 ‘미래 통일을 위한 기부 계획’이나, E, F 이주민들의 ‘국제 교류 그룹 활동’은 이주민의 나눔 활동이 출신국과의 정체성 및 유대감을 유지하고(Martinez-Damia et al., 2023), 단순한 금전적 송금을 넘어 사회적 송금을 실천하는 통로(Thomas, 2020)임을 확인시켜준다. 이주민의 나눔은 이들이 거주국과 출신국 모두에 소속된 이중 정체성 기반의 초국가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2) 일반인과 이주민의 나눔 활동 비교

본 연구 결과, 이주민의 나눔 활동은 주류 사회 시민의 나눔과 여러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이주민의 특수한 경험과 적응 맥락으로 인해 그 동기와 기능, 경험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보였다.

첫째, 주류 사회 시민의 기부 동기가 ‘사회적 책임감’이나 ‘개인적 자아 실현’에 집중된다면, 이주민의 나눔은 ‘존재의 증명’과 ‘사회적 편견 극복’이라는 적응 압력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이주민에게 나눔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받은 도움에 대한 ‘보은의 윤리’이자, 동시에 사회적 낙인(도움 받는 존재)을 극복하고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존-적응의 도구’로 기능한다. J의 진술처럼, 이주민 나눔은 고립과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치유적 기능을 강하게 내포한다.

둘째, 주류 시민에게 나눔은 사회화된 시민성의 실천이자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지만, 이주민에게는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회이자 주류 사회로 진입할 통로였다. E의 경험처럼, 봉사 활동을 통해 ‘약자’가 아닌 ‘필수적인 존재’로 대접받는 경험은 ‘적응 압력(모범 이주민 되기)’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동반하면서도, 이주민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의미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셋째, 주류 시민의 초국가적 활동이 ‘선택적 해외 지원’과 ‘단일 정체성 기반’인 반면, G의 진술처럼 이주민의 나눔은 ‘필수적 고향과의 연결’이자 ‘이중 정체성 기반’의 실천이었다. 이는 본국 공동체와의 관계성 유지 및 초국가적 사회적 자본 형성에 필수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표 4〉 일반 시민과 이주민의 나눔 활동 비교

영역	일반시민	이주민	공통점
동기	자발적 선택 사회적 책임감 개인적 자아(가치) 실현	보은: 받은 도움 되갚기 존재의 증명 사회적 편견 극복	받음과 줌의 순환: 상호성
기능	이타적 도구 자아 실현: 의미 있는 삶 사회 참여: 시민적 덕목	생존-적응의 도구 치유적: 고립/낯섬/어려움의 극복 정체성: 시민으로 인정	자존감 향상과 삶의 의미 발견
경험	사회화된 시민성의 실천 사회적 지위 유지-강화 자유로운 선택	언어와 문화 학습의 장 비공식적 사회화 기회 주류 사회로 진입할 통로 적응 압력: 모범 이주민 되기	진정성, 공감, 일상적 습관화
초국가성	선택적-해외 지원 단일 정체성 기반	필수적-고향과 연결 이중 정체성 기반	관계성, 사회적자본

2. 결론

1)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북한, 베트남,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출신 이주민 총 11명의 심층적인 나눔 활동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나눔 활동이 이주민의 사회 통합과 정체성 재구성에 미치는 다층적인 의미와 기능을 규명했다. 연구 결과는 이주민의 나눔 활동이 단순히 시혜적인 행위가 아니라,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의 존재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경험이자, 이주민 스스로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공동 시민성을 확립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가 밝힌 이주민 나눔 활동의 네 가지 핵심 의미(정체성 전환, 회복적 치유, 사회 통합의 장, 초국가적 실천)는 이주민의 나눔이 한국 사회 적응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치유적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나눔은 언어 및 문화 학습의 비공식적 통로로 이주민이 주류 사회 시민과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주민을 단순히 수혜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실천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 방법으로서의 나눔 활동 접근: 언어가 되고 나서 사회 참여를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기부 활동의 기회를 통해서 먼저 이주민의 적응을 촉진하는 지역사회의 실천 도구로서 접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나아가 한국어 및 문화 학습과 연계한 ‘취업·학습 병행형’ 지원을 시도함으로써, 이주민의 사회 적응과 통합 경로를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이주민 나눔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이주민, 특히 난민 배경의 이주민이 나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과 장애를 줄여주고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주민 및 난민 단체의 제도적 연계 강화: 이주민/난민 단체가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때, 비자 및 지위 관련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이주민 단체의 비영리 조직화를 지원하여 공식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한국에 사는 11명의 이주민들의 나눔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중 여성이 10명이었고, 결혼 이주 여성 비율이 높았다. 이주민의 봉사/기부 활동 규모에 대한 국가 단위의 공식 통계 부재로 인해,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 규모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연구 규모 확장 및 다양성 확보: 남성 이주자, 고령 이주민,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포함하는 더 큰 표본을 확보하여, 이주민의 나눔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종단적 질적 연구 확대: 나눔 활동 경험의 변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종단적 질적 연구를 추진하여, 나눔을 통한 내면 치유와 정체성 재구성의 심층적 과정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셋째, 시대 변화에 따른 비교 연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투명성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이주민의 기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민 기부의 장기적 영향,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북한 이주민과 일반 이주민, 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 간의 나눔 경험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국회. (20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김미희. (2013).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44(4), 183-214.
- 김영수, 이연주. (2023). 결혼이주여성의 자원봉사 참여 유형에 관한 Q방법론적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6(2), 227-258.
- 김현정. (2023). 이주자 사회통합 관련 법률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71, 87-116.
- 남성희. (2025).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능력 입증과 가산점 제도. *이민정책연구*, 14(2), 78-95.
- 법무부. (201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법무부. (202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6~제53조의7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이민정책 > 이민자 사회통합.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18/subview.do>
- 법무부. (2025). 2024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실.
- 법제처. (2012).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 가능 여부. 법령해석 2012-0155.
- 서울글로벌센터. (2018). 2018 글로벌 시민포럼 in 서울 “자원봉사, 경계를 넘어서” 개최. 보도자료.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8). 외국인 자원봉사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집.
- 여성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여성가족부. (2024). 전국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 이지은, 황태연, 김우성, 이채영. (2024).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정책연구*, 1-15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제11차 사회통합실태조사: 이주민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수용성.
- 행정안전부. (20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관련 법령해석(2012-0155).
- Caouette, D. (2006). Thinking and nurturing transnational activism: Global citizen advocacy in Southeast Asia. Kasarinlan: Philippine,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21(2), 03-33.
- Carlà, A., Mulinari, S., & Bäckström, A. (2023). Immigrant volunteering and social integration: A longitudinal study of volunteer experiences in six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thnic and*

- Migration Studies*, 49(1), 154–173.
- Dafallah, A., & Witter, S. (2025). Diaspora as partners: strengthening resilience of health systems and communities amidst aid volatility. *BMJ Global Health*, 10(6).
- DeSouza, M., Osei, O. E., & Idemudia, E. S. (2023). Transnational migrants' philanthropy: Its forms, operati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Ghanaian residents in Europe. *Frontiers in Sociology*, 7, 1062755.
- Government of Canada. (2022). Immigrant participation in charitable activities and volunteering. *Statistics Canada Report*.
- Hillenbrand, T., Martorano, B., Metzger, L., & Siegel, M. (2025). Humanitarian concerns and threat perceptions: An analysis of the key drivers of refugee attitudes in Germany. *Migration Studies*, 13(3), mnaf025
- Imagine Canada. (2024). Navigating new horizons: Charitable giving among multicultural Canadians.
- Kim, H. S. (2017). Of bonding and bridging: Ethnic social capital and contingent employment among immigrant women in Korea. *International Sociology*, 32(4), 470–489.
- Kim, H., Shin, K. H., Kim, H. H., & Ryoo, J. H. (2022).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Migrants in Korea Regarding Blood Donation in Association with Sociodemographic Status.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42(2), 258–267.
- Martinez–Damia, S., Marzana, D., Paloma, V., & Marta, E. (2023). Community participation among immigrants: A generative journey towards personal growt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95, 101712.
- Mold, A. (2010). *Diaspora charitable practices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giving*.
- Panter–Brick, C., Qtaishat, L., Eggerman, J. J., Thomas, H., Kumar, P., & Dajani, R. (2024). Volunteer programs, empower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Jordan: mapping local knowledge and systems change to inform public policy and science diplomacy. *Frontiers in sociology*, 9, 1371760.
- Ramachandran, S., & Vathi, Z. (2022). Volunteering as survival and integration strategy among asylum seekers in Glasgow. *Journal of Refugee Studies*.
- Ramakrishnan, K., & Viramontes, C. (2006). Civic inequalities: Immigrant volunteerism and community organizations. *Civic Engagement Series*.
- Refugee Council Australia. (2019). *Volunteering and wellbeing among refugees in Australia*.

- Ruiz, T., & Ravitch, S. (2022). Volunteerism and agency among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6(3), 567–590.
- Ruiz Sportmann, T. (2022).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social integration among immigrants in Philadelphi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6(3), 567–590.
- Spit, N., Tonkens, E., & Trappenburg, M. (2025). The Emotional Costs of Solidarity: How Refugees and Volunteers Manage Emotions in the Integration Process. *Social Inclusion*, 13(S1), 1–12.
- Thomas, T. (2020). Transnational volunteering and social remittances among the Nepalese diaspora in the UK. *Migration Studies*, 8(3), 461–480.
- World Bank. (2023). Remittance flows to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2023 update.
- Zhang, Y., & Meijering, L. (2025). Internal migrants' social integration through community volunteering during the pandemic in China. *Migration Studies*, 13(1), mnae053.